

2. 순천사림의 형성과 성장

순천사림의 형성에는 기본적으로 이상과 같은 신·구세력의 교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화를 계기로 낙향하였으나 이후에 일어난 당쟁과의 관계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 사림의 학맥이 지역적 연관성 말고는 제각각 다른 것도 이러한 현상과 상통하고 있다. 이들의 행적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한훤당 김굉필(1454~1504)과 매계 조위(1454~1503)의 유배생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16세기 초의 진솔회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치적을 남긴 구암 이정(1512~1571)과 그와 더불어 일을 한 승평사은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병란 때의 사림활동에 관한 것으로, 이 점은 당시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사림간의 인맥과 통혼관계도 이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